

전남, 교통사고 다발지역 오명 벗기 팔 걸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 내년 과속 단속 카메라 190대 설치 전담팀 신설·시설 개선 290억 투입

전남도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오명을 벗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전담팀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과속 구간 단속카메라 190대를 늘리는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29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87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매년 40여명씩 줄여 오는 2022년에 185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4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업무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중점 사업으로는 교통시스템 개선 보강 분야 9개 사업으로 279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과속 구간 단속카메라 190대(이동식 25개·고정식 165개)를 추가 설치한다. 전남의 인구 1만명 당 차량 등록대수는 17개 시도 중 2위인 반면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카메라 대수는 1.9대로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단속 카메라는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노인보호구역에 25개, 마을주민보호 구간에 10개, 과속 구간에 145개, 상설시장에 10개를 배치할 방침이다.

현재 시속 60km인 도심부 속도 제한도 시속 50km로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목포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한 뒤 여수·순천·나주

광양시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노인보호구역 25곳을 신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216개소의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한다. 농어촌도로 가시성 확보를 위한 노면 색깔 보정 등 마을인접도로 개선, 상설시장 주변 생활도로 구역 지정 정비, 보행자 정보알리미 시스템도 도입한다.

교통 분야 홍보교육 분야에도 18억원을 들여 교통안전문화운동, 이륜차 안전가이드북 배포, 어린이·고령자 안전체험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29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2%나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

가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가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도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연간 1만여건이 발생해 부상자 연간 1만6000명, 사망자는 매일 1명이 발생하고 있다. 10만명당 전국 평균보다 발생 건수는 26.4%, 부상자는 36.7%, 사망자는 147.1%나 높은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62.2%가 지방도(17.5%)와 시·군도(44.7%)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50.7%로, 전국 평균 40.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륜차 사망자도 20.6%로 전국 평균(13.7%)에 비

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남의 교통안전지수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의 안전권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재난에 준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투입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주동식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노인 사망자와 농어촌의 시·군도의 사망자 비중이 높은 만큼 고령 보행자 보호와 시·군도의 교통시스템 개선·보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이양일괄법 즉각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철뉴스

장성 상무대 ‘전두환 범종’

반환 문제 올해도 해 넘길 듯

5월단체 만난 군특별교구 난색

장성 상무대 군 법당에 있는 ‘전두환 범종(梵鐘)’ 반환 문제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속적으로 반환 후 전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교계와 군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7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월 단체들은 지난 11일 범종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육군본부에서 군중특별교구 부교구장 등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5월 단체는 “전두환 범종을 반환받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 전시하고, 상무대 군 법당에는 ‘대체 범종’을 제작해 주겠다”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앞서 광주시도 대체 범종 제작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7000만원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군중특별교구 측은 범종이 ‘성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광주 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자신의 이름을 새겨 상무대 무각사에 기증했다. 5월 단체는 이 범종을 역사적 상징물 중 하나로 보고 2014년부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중국서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

CCTV·CNN 등 140여 개 미디어 회견 북경영선수 단장·감독 만나 참가 요청

중국을 방문 중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세계 미디어와 각국 수영지도자를 대상으로 내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적극 홍보해 주목을 받았다.

이 시장은 16일 오후 5시(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시 올림픽·엑스포센터에서 CCTV, CNN 등 세계 140여 개 미디어를 상대로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의 매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이 시장은 “광주는 FINA의 도움과 상호협력력을 통해 내년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었던 평창동계올림

픽처럼 광주대회는 세계 최고의 안전대회가 될 것이며, 광주의 밤거리는 무장경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장, 감독, 선수를 만나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를 요청했다.

내외신 기자들은 북한의 참가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 시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극심한 갈등을 지속해온 남북한이 공동선수단을 구성하고 북한의 응원단과 공연단이 광주에 온다면, 갈등이 아닌 화합, 분열이 아닌 통합의 감동 이야기들이 지구촌을 울리고 희망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FINA가 광주 수영대회의 북한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올 농산물 2207억원 어치 직거래 판매

전남도가 올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총 2207억원 상당의 전남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학교 및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357억원, 과채류 332억원 등 총 688억원을 판매했다. 또한,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 경로를 활용한 판매실적이 151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은 농산물 판촉, 쌀 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등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 4개 분야 46개 지표를 통해 전남 22개 시·군의 올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 올해 시·군 업무 평가 결과 해남군이 대상의 영예

를 차지했다. 이어 담양군과 강진군, 영광군이 우수 수상, 광양시와 영암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대상은 1400만 원, 최우수상은 900만 원, 우수상은 45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특히 해남군은 직거래 활성화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등 쌀 판촉 활동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담양군과 강진군, 영광군은 농산물 판촉 및 친환경 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우수했고, 광양시와 영암군은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및 농식품 산업 육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조오섭 前 광주시의원 국가균형발전위 소통기획관

전진숙 前 의원 靑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 임명

조오섭·전진숙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전문임기제)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조 기획관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제6·7대 광주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 대표위원을 지냈다.

조 기획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하는 길이며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 지역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전 의원은 광주 동신여고, 전남대 화학과를 나와 전남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제6대 광주 북구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조오섭 전의원

전진숙 전의원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을 거쳐 2014년 제7대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환경복지위원장 등을 지냈다.

전 행정관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소통을 기본으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늘 낮은 자세로 일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

지역문화진흥원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적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12.26.(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개요

행사명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
일시 2018. 12. 26.(수) 14:00 - 17: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대상 문화가 있는 날을 함께 만들어갈 누구나 (문화예술단체, 교육단체, 예술가, 문화기획자, 활동가, 기획사 등)
주최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있는날사업추진단)

참가방법
신청방법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
신청기간 2018. 12. 25.(화) 14:00 까지
생중계 본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문화가 있는 날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을 통해 생중계 알림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있는날사업추진단
☎ 02.2623.3119 ✉ hjkang@rcda.or.kr

프로그램

14:00 - 14:10	지역문화진흥원 소개
14:10 - 14:15	인사말
14:15 - 14:25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 안내
14:25 - 16:00	2019 주요 공모사업 소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font-size: smal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 청춘마이크 ✓ 동동동 문화놀이터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문화배달 ✓ 동네책방_문화사랑방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div> </div>
16:00 - 16:10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공모신청 방법 안내
16:10 - 16:20	휴식
16:20 - 17:00	질의응답 (사업별 안내데스크 운영)

* 당일 상황에 따라 설명회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